

# 마맹 그리고 글맹

이 석 철

(주)서울시스템서비스 대표이사

나는 또한 마맹이라는 생각도 버릴 수 없다. 누구나 그렇지만 평소에는 말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 특히 식사시간에 같은 테이블에 앉은 식구들(동료, 친구, 사업관계 등)과는 이야기로 말할 것 같으면 남들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고 떠들어 댄다. 화제거리도 무궁무진하다. 아무 이야기든지 누구하고서라든지 어디서든지 곧잘 어울린다.

그러나 문제는 마이크 앞에서이다. 사회자가 어찌다가 내 이름이라도 부를 것 같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지가 경직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입이 제일 먼저 마비되어 버리는 것 같다. 몇 번씩 호명을 당한 뒤에 할 수 없이 사회자 앞으로 나아 가지만 막상 마이크 앞에 서면 할 말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다.

한번은 내가 꼭 지명당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인사말을 하고 내가 자라난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그 간의 경력

그리고 내 사업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면 되겠구나 하고 속으로 몇가지 요점을 정리하여 두었다.

그러나 사회자는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양 다른 사람들에게만 마이크를 돌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만 생각해 두었던 것을 머리 속에서 지워 버리고 옆의 친구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빠져 버렸다.

모임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사회자가 특별히 소개할 사람이 있다면서 나를 지명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만 당황해져 버렸고 모처럼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어느 회사 대표 누구라는 회사 이름과 이름 석자를 겨우 말하고만 적도 있었다.

나 같은 마맹은 이세상에 많이 있다고 본다. 마맹끼리 모여서 협회같은 걸 만들어 애로사항을 하소연 하는 시간을 가져 봄 직도 한 심각한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글맹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 청탁만 받으면 쓸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혹자는 남한테 너무 완벽함을 들어 내고자 하는 결과로 글쓰는 것이 망설여지는 것이 아니냐는 양해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꼭 그런 점만은 아닌 것 같다.

남들이 써 놓은 글을 보면 이 정도쯤이야 하고 생각 되지

만 막상 원고지를 대하고 나면 첫 줄 쓰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다시 쓰다 보면 결국은 한 줄도 못 쓰고 다음으로 미루게 되고 마는 것이다.

몇 번씩 원고 독촉을 받은 후에 굳은 결심을 하고 원고지를 마련해 보았건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제목을 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막상 제목에 맞는 글을 쓰려다 보면 그 놈의 시작이 왜 그리 어려운지....

이렇게 원고를 보내지만 글맹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다.